

70세 열혈남,
미래를
질주하다

할리 데이비슨과 아우토반을 열망하는 젊은 할아버지
그에게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넘치는 열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진정한 청년 - 그가 눈부십니다.
삼양은 화학, 생명공학, 식품사업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筆巖書院 山仰會報

◇目次◇

- | | |
|-----------------------------|-------------------------|
| 1. ... 山仰會가 나아갈 길 | 13. ... 筆岩書院 消息 |
| 3. ... 一貫賦 | 15. ... 山仰會 消息 |
| 5. ... 佯狂爲奴論 | 17. ... 百聯抄解 現代語 번역 배포記 |
| 7. ... 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弔申生辭) | 19. ... 山仰會員 名單 |
| 9. ... 河西 金麟厚先生에 대하여 | 24. ... 誠金內譯 및 新入會員 |



廓然樓(廓然樓)는 필암서원 門樓로 宇宙를 상징한다. 題額은 尤菴 宋時烈이 썼다.

(515-812) 全南 長城郡 黃龍面 筆岩里 377, 電話: 061-394-0833
(501-050) 光州廣域市 東區 대의동 57-5 (4층) 대동문화 內 (電話: 062-233-1313)
發行人: 山仰會長 安晉吾 編輯主幹: 金梓洙

金梓洙 (광주교대 교수)

山仰會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山仰契의 정신을 이어받아 2001년 8월 22일에 筆巖書院 山仰會로 재출발한 이래 실로 눈부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명한 학자이신 安晉吾, 趙鍾業, 金基鉉, 金鎭雄, 朴來鎬, 尹絲淳, 吳鍾逸, 琴章泰, 朴煥圭님을 초청하여 9차례 강연을 들었으며, 春秋祭享을 모시고 삭망 봉심 후 講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先賢이신 河西 先生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받아 유교문화의 전통을 지키는 일로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 일을 제쳐두시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산앙회 원 제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山仰會報 創刊辭에서 安晉吾 회장님이 밝힌듯이 山仰會는 書院文化와 선비문화를 現代化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재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금장태 교수는 한국의 儒敎가 21세기의 사회 현실 속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되살아 날 것인지, 혹은 대중으로부터 망각된 채 겨우 명맥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과거의 문화 재로만 남아 있을 뿐 사실상 사라져버릴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절감한 山仰會는 儒敎의 가치관이 한국인의 전통문화와 도덕의식 속에 아직도 광범하게 퍼져 있는 현실적 토대를 깊이 인식하고 유교조직이 확고한

신념으로 자기혁신을 꾀한다면 유교문화를 오늘의 현실 속에 되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한 가닥의 希望을 안고 작은 횃불을 밝히자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자면 山仰會는 유교의 정신문화를 실천하는 儒敎共同體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까지 9차례 강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現代韓國儒敎의 課題」라는 주제로 서울대 금장태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山仰會員들이 보수적 성격이 강한 노년층이어서 그런지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장태교수의 논문이 오늘날 한국 유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해결해야 할 방향도 낱알이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琴교수의 저서 두 권과 함께 이 논문을 열 번이나 읽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금장태교수의 논문을 꺼내어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교의 나아갈 방향과 산앙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몇 개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토론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山仰會가 추진해야 할 목표와 실천할 일들을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가 당면하

고 있는 현실문제는 유교적 가치관이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천년 이어져 내려온 유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지혜자본입니다. 유교의 인격적 도덕질서가 산업사회의 기술 문명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새롭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 탐욕과 환경오염을 해결하자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웃과 자연 사랑으로 확장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염원했던 天人合一의 유교적 이상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자면 무엇보다 먼저 산양회의 조직이 유교이념을 실천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유교공동체로 태어나야 합니다. 春秋祭享에 참여하고 강연을 듣고 마는 느슨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여 老年을 幸福하게 보내는 유교공동체 조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산양회원 상호간의 유대가 긴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교문화 유적지 탐방을 해보는 것도 좋고, 즐겁게 참여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통놀이나 운동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산양회원들이 노년의 보람을 느끼며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하나로 光州鄉校가 자리잡고 있는 光州公園은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광주 향교가 광주공원 내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도시 노인 문제를 방치해 왔다는 것은 유교가 사회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 것을 단적을 보여줍니다. 광주공원과 사직공원 일대를 유교문화 공간으로

설정하고 老人問題 해결에 봉사하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교가 사라져버릴 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맞게 된것은 유교를 신봉하는 젊은 후속 세대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그 많은 동아리 가운데 유교 동아리 하나 없음이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청년 유도회를 결성하여 선비공동체의 儀禮인 鄉飲酒禮를 재현하였으며, 근래에 유교교단이 冠禮를 成年式으로 되살려내고자 했으나, 젊은이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요강좌, 일요학교, 서도교실, 신부학교, 명륜학당, 家訓갯기 등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실패한 것은 교육방법이나 운동방법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구태의연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원인을 철저히 연구하고 반성하여 새로이 추진해야 합니다. 大學이나 대도시 향교나 서원에 유교 동아리를 결성하도록 유교단체가 연합하여 총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활동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필암서원에서는 선비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선비들> 또는 <젊은 선비학당>이라는 동아리를 결성할 수 있도록 산양회가 적극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安晉吾회장이 제의했던 바와 같이 仁과 忠恕의 구체화인 己所不欲 勿施於人,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을 실천하는 일에만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過·不없는 中和를 통하여 개인의 행복을 얻고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河西先生의 사상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관부(一貫賦)

河西 金麟厚

어둠 속 운행하는 묘한 한 이치
소리도 냄새도 없이 아득만 하네
위로는 높고 둥근 昆侖을 뚫고
아래로는 厚載의 땅 밑에까지
실상은 만 조화의 樞紐라면
오로지 品彙의 根柢다 마다
예 이제를 연대어 노상 그런데
어느 한 물건엔들 體 아니 되리
귀하도다 上聖은 性을 다하여
그야말로 넓고 큰 하늘이로세
지묘한 本然의 포함이라면
靜專한 方寸의 混合이로세
이미 一을 주장 삼아 갈림 없으라
진실로 순수하여 둘이 아닌 걸
事機야 만 가지로 변하건 말건
곳에 따른 酬酢은 이에 있느니
汎應을 비롯하여 曲當에까지
物마다 그 그칠 바를 얻게 된다고
천하가 제 아무리 넓다 하지만
모두가 내 한 몸에 매었느니라
찬란한 저 삼천 威儀 삼백 禮儀는
한 가지도 仁 아닌 것은 없다네
玄思는 萬微를 꿰뚫어 가고
神光은 九垓를 환히 비추네
어울려 통하고 또 모로 사무쳐
느끼는 바에 따라 쓰여지나니
體는 비록 至密에 감추었지만

用은 두루 당치 않은 데 없고
位育의 지극한 공을 이뤄도
처음부터 밖에 것을 기다림 없네
더더구나 萬殊가 一原이어서
그물코가 버릿줄에 달린 것 같네
요컨대 내 마음이 主宰 있어야
어디에고 應接할 수 있는 거라네
거룩할사 공부자의 大成이시어
千聖의 心傳을 바로 접했네
顏淵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高堅을 통할 자가 누구란 말가
홀로 曾參만이 守約을 하니
삼 천 속에 사람 얻어 보다 기뻔네
실천 이행 쌓은 적이 하마 오래라
진실로 當然의 일 精察하겠지
그렇지만 上達이 극진 못하니
그 까닭을 어찌 아니 깨우쳐 주리
道器를 합치시킨 은밀한 말씀
서슴없이 唯로써 心契가 되네
이에 따른 淺學들의 번거론 물음
荒忽한데 뛰어들가 두려운지라
忠恕를 지적하여 대답을 하니
이로써 그 津筏을 인도한 걸세
행여 이 말에 소득 있다면
위 아래를 다 통할수 있다 마다요
원컨대 우리 이를 일삼는다면
子游子夏 부뵈할 것 거의 없으리

妙一理之冥運 泯聲臭以沖漠
 通高圓之昆侖 窮厚載之磅礴
 實萬化之樞紐 諒品彙之根柢
 亘古今而常然 豈一物之不體
 貴上聖之盡性 羌浩浩乎其天
 涵本然之至妙 渾方寸之靜專
 既主一而無適 謬純亦而不二
 紛事機之萬變 顧酬酢之在是
 自汎應而曲當 物各得其所止
 彼天下其雖廣 總管攝於吾身
 粲三千與三百 亦無一而非仁
 徹玄思於萬微 燭神光於九垓
 藹交通而旁達 隨所感而恢恢
 體雖藏於至密 用則無乎不周

致位育之極功 初無待於外求
 盡萬殊之一原 若衆目之在綱
 要吾心之有宰 斯應接之無方
 猗宣尼之大成 接千聖之心傳
 自顏氏之云亡 孰心通乎高堅
 獨參乎之守約 欣得人於三千
 已踐履之積久 固精察乎當然
 然上達之未盡 盍開喻其所以
 合微言於道器 忽心契於一唯
 煩淺學之從問 恐凌躐於荒忽
 指忠恕以爲對 茲可導其津筏
 倘斯言之有得 可徹上而徹下
 願吾黨之是事 庶無羨於游夏

… 동소문 밖에 노닐면서(遊東小門外) …

河西 金麟厚

봄철도 이제 하마 늦어가는데
 구십날을 헛되이 넘기란 말과
 여러 친구 내 손을 붙들고 나와
 성문을 벗어나니 유취幽趣가 많군
 길이 멀어 질러가고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송라松蘿를 빼놓을 수야
 상춘賞春이라 옷소매 나풀거리고
 시내엔 가벼운 물결 출렁이구나
 물가에 다다르자 걸음 멈추고
 잔디밭에 자리를 마련했노라
 활을 당겨 과녁에 쏘기도 하며
 갖가지 술과 안주 앞에 널렸네
 저물어도 돌아갈 줄 전혀 모르고
 취한 얼굴 꽃과 다뤄 붉은 자랑을

나의 뜻은 임천林泉에 노상 있는데
 이렇게 허덕이니 끝내 어쩔지
 하루의 즐거움을 만들어주어
 봄놀이의 노래를 불러보노라

春事將已蘭 九十其虛過
 諸君執我手 出城幽趣多
 路遠欲徑還 亦未有松蘿
 飄飄賞春袂 溪水翻輕波
 臨流此踟躕 設筵坐青莎
 張弓射小的 酒羞紛前羅
 日西未言歸 醉面花爭酡
 林泉固吳志 役役終乃何
 做却一日歡 作此遊春歌

양광위노론(佯狂爲奴論)

河西 金麟厚

紂가 포학무도하므로 銀나라 왕자 比干이 3일 동안 諫하였다. 紂는 “내 들으니 聖人의 心은 일곱 구멍(7竅)이 있다고 한다.” 말하고 비간의 배를 갈랐다. 이를 두려워한 箕子는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노예가 되어 감옥에 갇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河西가 논하였는데, 역설적이게도 뒷날 하서는 미친척하여 明宗의 부름을 모면하고 仁宗에 대한 충절을 죽는 날까지 지켰다.

< 편집자 >

論을 아래와 같이 한다.

사람의 싫어하는 것은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함이 없지만 道가 존재하는 곳에는 군자가 이것을 욕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내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보다 천함이 없지만 義가 있는 곳에는 군자가 그것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욕되고 천한 것은 내 몸 밖에 있고 道와 義는 내 몸 안에 있는 것이니,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세울 뿐이요 그 밖에 있는 것은 마땅히 순히 받아야 할 줄을 안다면 어디에 들어가도 스스로 얻지 못할 것이 없다.

獨夫 紂는 교만하고 사치하고 음탕하고 안일하여 하늘도 싫어하고 사람도 지켰으니 成湯의 수 백년 종묘 사직이 장차 異姓에게 옮겨가게 되었은 즉 할 말을 다하고 과감

히 간하여 죽음이 있을 따름이며, 선조를 받들고 제사를 보존하여 떠나감이 있을 따름 이거니와, 이미 죽지도 못했고 또 떠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면 진실로 마땅히 그 몸을 보전해야 하며 꼭 그 무익한 죽음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道를 지키고 義를 행하여 명분 없는 떠나감에만 급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내 몸이 천하고 욕되는 것도 피하지 아니할 수가 있으며, 그 道의 존재한 바와 義의 편안한 바도 당초 또한 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이상 자취는 비록 예의를 버린 것이 혐의스럽지만 도는 진실로 그대로 있으며, 일은 비록 그 몸을 가볍게 여기는 데 들어가지만 의는 일찍이 망하지 아니한 것이다.

왜냐하면 가하지 않으면 그치는 것은 大臣의 道요, 나라와 더불어 休戚을 같이 하는 것은 貴戚의 義인데 하물며 諫하다가 갇히고 보면 말을 올릴 길이 없고, 나라에 사람이 없으니 떠나가야 할 義가 없음에랴.

이 때를 당하여 천하의 민심이 銀나라에 돌아간 지가 오래이라, 故家 遺俗의 承襲과 流風 善政의 남음과 선왕의 덕택이 백성에게 젖어 든 것이 대개는 민멸되지 않았으니, 사람의 일이란 변천이 있고 기회란 무상할 것인 즉 혹 亂世가 변해서 治世가 되고 禍가 돌아가서 福이 되는 경우라면 나는 모르겠으나 천하의 책임을 맡을 자가 누구이라.

어찌 차라리 죽어서 은나라 망하는 꼴을 보지 아니하고, 차라리 떠나가서 화가 몸에 미치지 아니할 것을 헤아리지 아니했으리요 만 죽어도 무익한 죽음이라면 죽는 것만이 제일은 아닐 것이요, 떠나가도 명분이 없다면 떠나가는 것을 조출하다고만 아니할 것이다. 길이 생각하고 돌아보곤 하여 그 權을 얻어 그 中을 씌에 있어서는 마땅히 道로써 몸에 따르게 하고 義로써 命에 처하게 하여, 放曠으로 形을 잊고 厠賤으로 일을 하되 오직 처하기를 편안히 하고 욕되지 않은 바가 있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을 보전하는 것이요, 그 몸을 보전하는 것은 바로 그 道와 義를 보전하는 것인 동시에 끝내는 그 국가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때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에 이르러는 미리 염려할 바가 아닌 것이니, 일이란 혹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때란 마침 이르러 오는 수도 있는 것인즉 죽지 않고 떠나지 않고 천하고 욕되는 데에 甘心한 것은 어찌 다른 일이 있어서랴.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만 몸 보전하는 것만으로 지극하다 하며, 道와 義가 존재하고 편안한 것은 살피지 못한다면 어찌 죽히 聖賢을 논할 수 있으랴. 易에 이르기를 “안은 어렵되 능히 그 뜻을 바로 한다” 內難而能正其志) 또는 “箕子의 明夷이니 貞固함이 이름다.”라 했으니 이로써 지극하다 하겠다.

謹論

論曰人之所惡莫甚於辱吾身而道之所存則君子不爲之辱焉吾身之辱莫賤於爲奴而義之所安則君子不爲之

賤焉辱與賤存乎外而道與義存乎內則吾知立乎其在內者而其在在外者吾當順以受之無入而不自得焉獨夫受驕奢淫佚天厭人困成湯數百年之宗社將移於異姓盡言敢諫有死而已奉先存祀有去而已既不至死又不可去則固當全其身而不必取其死之無益也守道行義而無急於去之無名也吾身之賤且辱有所不避而所存所安者初亦無待於外迹雖嫌於捨禮義而道固自若也事雖涉於輕其身而義未嘗亡也何以言之不可則止者大臣之道也與國同休戚者貴戚之義也況諫而囚則無進言之路矣國無人則無可去之義矣當其時天下歸銀久矣故家遺俗之承襲流風善政之猶存先王之德澤洽於民者蓋未嘗泯也人事遷易機會無常或猶可以變亂而爲治轉禍而爲福則吾不知其任天下之責者誰也豈不料其寧死而不見商之淪喪也寧去而不待禍之及己也死而無益則不以死爲是也去而無名則不以去爲屑也長思却顧得其權而用其中宜莫若以道徇身以義處命忘形於放曠服役於厠賤而惟處安有所不辱此非以辱身也乃以全身也全其身乃所以全其道與義而終欲於以全其國家也至於事之不必濟時之不可復者非其所豫慮也事有或然而時有適至則不死不去而甘心於賤且辱者豈其他哉世之人或只以全身爲至而不察於道與義之所存所安則何足以論聖賢哉易曰內難而能正其志又曰箕子之明夷利貞其至矣乎謹論

신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弔申生辭)

河西 金麟厚

썸나라 獻公이 驪戎을 정벌하여
얻은 驪姬를 지극히 사랑하여 아들
奚齊를 낳으니, 여희는 태자 申生을
폐하고 자기 아들인 해재를 세우고
자 하여 헌공에게 태자를 모함하여
죽였다. 河西는 仁宗의 죽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여 이 시를 지었다.

< 편집자 >

사람은 말지 못할 至情이 있어
베어내고 녹여내도 없애진 못해
온 세상이 엄폐하길 좋아하는데
世子는 왜 홀로 드러냈지요
수다스런 허물에 걸려든 것은
아버이 사랑할 줄 모르는 까닭
오로지 임금 생각 딴 일 없으니
미혹하여 괴임 받는 길을 몰랐네
상서롭지 못한 때를 만나고 보면
마땅히 무릴 떠나 혹 되어야
모친을 제사하고 부친에겐 죄 얻으니
이 어찌 인정으로 측량할 바라
참소 또한 딴 사람의 짓이 아니라
세자의 부르짖을 쉴 새 없구려
六日을 지적하여 해명한다면
임금 마음 상하리니 아니되는 일

가령 일러 딴 나라로 도망간단들
아비 없는 지방이 어디 있으리
세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대개 슬퍼 용서를 함직도 하이
아비 허물 드러냈다 말들 하는데
그는 어찌 이 점을 생각 못했나
큰 매를 맞게되면 舜은 다라났으니
大孝가 아니라면 뉘 용인하리
도피할 곳 없다하여 앓아 죽으니
내 역시 恭의 이름 불만으로세
그런데도 붓대를 쥔 우리 聖人은
어찌하여 놓아주고 추궁 없었나
한번 仁에 뜻을 두면 惡이 없다더니
내 이제야 진실로 그걸 알았네
후세에선 順從을 허물로 여겨
免키 위해 天理를 거역하거든
다시금 亂臣賊子 발을 붙이어
그들은 세자더러 不孝라 하네
죄상을 도피하고 찬탈 다투며
제 마음 깨끗하다 내세우나니
세자의 속마음을 뉘 알아주리
아득한 저 하늘만을 쳐다볼 따름
심사가 산란하여 풀리질 않아
천년 아래 호올로 방황만 하네

人有不能已之至情兮 斬伐鎖鑰而靡亡
 世并舉而好蔽兮 世子奚爲其獨彰
 般紛紛其離此郵兮 莫愛親之故也
 專惟君而無他兮 迷不知寵之路也
 遭時勢之不祥兮 固宜離群而贅疣
 祭吾母不得吾父兮 曷人情之所虞
 讒又不由於他人兮 勤世子之號泣于
 使子指六日以爲正兮 君之心又不可傷
 使子行乎他國兮 豈有無父之方
 世子心予忖度兮 蓋可哀而恕之
 人謂章不慈之名兮 彼獨何心而不思

昔舜之大杖走兮 無所逃而待烹兮
 顧聖人之秉筆兮 苟志仁則無惡兮
 後世以順親爲過兮 復有亂賊之接迹兮
 紛逋誅而爭篡兮 夫孰察子之中情兮
 思蹇產之不釋兮

非大孝其孰容
 吾亦不滿其爲恭
 曷爲縱釋而莫窮
 吾至今乃知其信然
 徒苟免而違天
 彼將謂子爲非孝
 言予心之皎皎
 但視天兮茫茫
 獨千載而彷徨

... 님 그리워(有所思) ...

河西 金麟厚

임의 나이 삼십을 바라볼 때에
 내 나이 서른하고 여섯이었소.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시위 떠난 활처럼 떠나간 임아.
 내 마음은 돌이라서 구르질 않네
 세상일은 흐르는 물 잊어지련만.
 젊은 시절 해로할 임 여의고 나니
 눈 어둡고 머리 희고 이가 빠졌소.
 슬픔 속의 봄가을 몇 번이던가?
 아직 죽지 못해 살아있다고.
 柏丹는 옛 대로 물가에 있고
 해마다 고사리는 돌아납니다.
 오히려 부럽구려 주나라 왕비
 생이별이야 만난다는 희망 있으니.

君年方向立,
 我年欲三記.
 新歡未渠央,
 一別如絃矢.
 我心不可轉,
 世事東流水.
 盛年失偕老,
 目昏衰髮齒.
 泯泯幾春秋,
 至今猶未死.
 柏丹在中河,
 南山薇作止.
 却羨周王妣,
 生離歌卷耳.

河西 金麟厚先生에 대하여

閔祐植(筆巖書院山仰會顧問)

하서 김인후는 1510년(중종 5년)에 탄생했는데, 爲人이 淸明溫粹하여 그때 사람들은 그를 淸水芙蓉에 비하기도 했다. 9세 때 服齋 奇遵이 공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 “이 아이는 마땅히 世子의 臣下가 될만하다.”고 말하였다. 10세에 慕齋 金安國에게서 小學을 배우고 나아가 大學, 論語, 孟子 등 諸書를 읽었다. 평소에 穆然端坐하여 講論이 있을 때는 혼연 스스로 만족한 나머지 새벽에 이르도록 잠자는 일이 없었다.

22세 때에 退溪와 같이 太學에 들어가 학문을 쌓았고 교분 또한 두터웠다. 31세(중종 35년)에 文科에 급제하고 玉堂에 薦拔되었으며 이어 弘文館 正字를 拜하게 되었고 박사 說書를 겸하였다.

仁宗이 東宮이었을 무렵 공을 대우함이 날로 높아 친히 당직하는 곳에 이르러 학문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때 朱子大全과 墨竹을 내린 바 있고 공은 詩로써 이에 謝恩한 바 있다. 이 목죽은 후세에 보물로 남아 있다. 이어 副修撰에 재임중 동궁에 火變이 있자 “自古로 주는 賢材를 아끼고 士習을 바르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삼지 않는 바 없었으며, 따라서 己卯의 禍와 같은 것을 朝野가 그 冤枉을 씻어주지 않고서는 능히 그 본심을 개진하여 非辜를

顯白하고 나아가 君主의 의심한 바를 풀지 못할 것이며, 또한 밑으로는 諸臣九原의 憤을 뚫을 길이 없을 것인즉 원컨데 虛心靜慮 깊이 致災의 願을 고려하여 마음을 講學으로 研修하고 本願으로 하여금 澄澈表裏皆實 一毫의 私僞도 이에 섞지 않게 한다면 즉 邪正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進言하였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결국 仁宗朝 말에 이르러 趙光祖등의 冤罪가 풀리게 되었다. 중종 39년 아버지 봉양하기를 빌어 玉果현감이 되었다. 그해 仁宗이 卽位하자 明의 弔祭使 張承憲 및 冊封使가 와서 製述官으로 임명되었고 그 임무가 끝나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여 귀향하고 만다.

40세에 大學講義跋을 짓고, 성균관 전적으로 두 번이나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했다. 그해 부친상을 당하고 2년 후에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명종 9년에 성균관 直講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自然歌를 지었다. 47세 때는 徐敬德의 讀易詩에 次韻하고 50세에는 高峰 奇大升과 太極圖說과 四端七情說을 깊숙히 講論하였다. 이 해 明나라 性理學者 整庵 羅欽順이 人心은 情이요 道心은 性이라 한 說을 비판하고 羅欽順의 학설을 지지한 蘇齋 盧守愼의 人心道心說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였다.

玉果에서 임금의 訃音을 듣고 杜門自廢하고 매년 諱日에는 집 남쪽 산으로 들어가 종일 痛哭하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내려오곤 하였다. 이로 인하여 병을 얻음에 玉果縣監을 그만두고 이로부터 일체의 任官命

습에도 모두 취임하지 아니하다가 명종 15년에 신병이 위독해지자 옥과현감 이후의 벼슬은 일체 쓰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세상을 떠나니 그때 나이 51세였다.

公의 학문은 誠敬을 主眼으로 하여 大成 하기에 이른 것이나 箸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것은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다만 數篇의 道學에 대한 文句 가운데서 그 大本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公이 李一齋에게 보낸 書簡 중에서 “理와 氣는 서로 混合해 있다. 그러므로 天地間에 충만한 萬物이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그것을 각자 具備치 않은者 없으니 理와 氣가 서로 분리해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太極은 道요 陰陽은 氣이므로 道器의 分別은 능히 한계가 없을 수 없다 할 것인 바 太極陰陽은 一物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것은 河西先生이 李一齋의 理氣一物說에 대한 反對論임과 동시에 그의 理氣混合說을 말한 것이다.

宋尤菴이 쓴 神道碑에 “花潭에 있어서는 頓悟의 捷徑에 흐르는 것이 걱정이요, 一齋는 그의 道와 氣를 혼합하여 一物로 만드는 것을 병폐로 하지만 先生은 人心道心을 논하는데 있어서 羅整庵의 體用說을 일축하였다. 退溪의 四端七情 理氣互發論을 奇高峰이 매우 의심하여 先生에게 질문하였더니 조금도 막히는 데가 없으므로 ”드디어 이 말을 退溪에게 論辨한 것이 거의 數萬言에 이르러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退-高峰 往復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公

은 이밖에도 天文, 地理, 醫學, 算數, 律曆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는 河西集,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百聯抄解등이 있다.

金河西에 대한 평가는 흔히 道學과 節義 그리고 文章의 세 가지가 함께 뛰어난 인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道學과 學問은 주로 詩文과 著述의 성과로 이룬 업적이므로 이에 文章에 대한 칭송이 集約되었다고 할 수 있다.

申欽이 “河西의 학문과 문장은 當世에 이미 迥出하였다고 한 것도 이러한 칭송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실제로 作詩를 보면 다양한 形式의 詩文이 방대한 양에 이른다. 이미 거론한대로 그의 漢詩는 약 1600수에 이르고 거기에는 우수한 작품이 많으니 문학사상 그를 훌륭한 作家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다.

특히 詩作活動을 하던 中宗 明宗朝間은 湖南에 宋純을 중심한 俛仰亭詩壇과 林億齡 金允悌 梁山甫 鄭澈을 중심한 星山詩壇이 대두되어 한국문학의 발전에 새로운 기운이 일기 시작한 때이다. 俛仰亭詩壇이 형성되면서 河西를 비롯한 林億齡, 朴淳, 李滉, 蘇世讓 등 이름난 시인들의 <俛仰亭題詠>은 모두 39수가 된다. 그리고 전남 담양의 星山에는 息影亭과 環碧堂 簫灑園 등이 있어 一洞三勝으로 알려진 곳이다 여기에서 宋純과 河西는 물론 林億齡, 金允悌, 梁山甫 등 名士들이 교유하며 星山詩壇을 형성하고 金成遠, 高敬命, 奇大升, 鄭徹 등 명사들이 뒤를 이어 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 시단이 俛仰亭詩壇과 쌍벽이 되어 湖南詩壇을 발흥시켰다. 이로 볼 때 河西는

호남시단의 중추적 인물로서 한국문학사상에 공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河西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道學的 倫理意識이 바탕이 된 작품이 많으므로 情的 審美感을 쉽게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에 못지 않게 表現主義的 작품이 다수에 이른다.

河西의 詩는 옛날에도 선비들간에 높이 評價되었다고 한다. 李晔光은 朝鮮朝 前期 詩壇人物을 평하여 朴祥, 林億齡, 林亨秀, 梁應鼎, 朴淳, 崔慶昌, 白光勳, 林悌, 高敬命 등 당시의 名詩人과 함께 河西를 칭송한 바 있다. 여기에 든 十傑 가운데 朴祥은 그가 師事하였던 인물이요 그 밖의 명사들도 두 시단에 출입하여 河西와 詩的 교류를 가졌던 명사들이다. 박상, 임억령, 임형수, 양응정, 박순 등과의 交遊詩는 河西集에 전한다. 이는 글에 뛰어난 당대 巨擘들과의 시 활동이 활발했던 것을 의미한다. 근래에 와서 또 그의 民謠認識의 문제가 새롭게 거론되어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평소에 詩經을 탐독하였다. “讀周南”, “讀召南”, “讀衡風”, “讀王風”, “讀鄭風” “讀唐風”을 비롯하여 “讀關雎篇” 등이 모두 詩經을 읽고 지은 詩이다. 이는 한결 같이 中國의 民歌로 알려진 國風에 대한 내용이라서 주목된다. 公은 詩經을 소중히 여겨 愛讀하였으며 國風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朱子는 이르기를 民俗歌謠의 시를 일러 風이라 하였는데 河西가 이러한 국풍을 좋아함은 곧 그에게서 보는 민요 인식의 일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민요적인 시로 “傷田歌” “詠李上舍鶴四美亭”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河西의 歌와 謠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농민의 삶이 主對象이 되고 있다. 道學者에게서 그리 흔하지 않은 작품세계라는 점에서 시문학사상 또 다른 그의 位相으로 지적된다.

門人들이 書院을 세워 春秋享祭를 올리게 되니, 顯宗朝에서 賜額하여 筆巖이라 하였고 吏曹判書, 兩館大提學을 追贈하고 文靖이라 謚號를 내렸으며, 正祖 20년에 다시 領議政을 비롯하여 최고의 관직을 加贈하고 文正이라 改贈謚하고 文廟에 配享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河西는 理氣를 포괄 회통한 大心の 철학자

학문적으로 河西는 理氣를 포괄·회통한 大心 철학자다. 배타보다는 포용, 분석보다는 회통을 중시하였고, 모든 사물을 같은 생명차원에서 교감했다. 그의 학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心은 一身萬事의 주재자다. 그러나 心만으로 주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心에 내재한 理를 타야만 주재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心을 定立시켜야 하는데, 이 공부가 救放心, 立大本의 敬이요, 밝혀진 大心(至理)을 다시 밖으로 확충해 가는 과정과 추진력이 修道요 至誠이다. 이 지성으로 盡己性 → 人性 → 物性해서 천지의 化育을 돕고 천지와 相參함으로써 우주생명의 대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거다. 천지는 부모요, 인간은 형제며, 만물은 동포다. 어찌 이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오직 순수정감으로 교류하고 사랑할 뿐이다. 천지를 슬퍼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正反·是非·得失·好惡가 밝게 가려질 것이니, 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로 보아 河西는 단순한 성리학자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도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金忠烈 교수논문 - 하서 이전 조선 성리학의 사상적 맥락에서)

… 筆巖書院 山仰會 沿革 및 活動事項 …

선정 하서 김인후 선생의 향사 서원인 필암서원에서 광복이후 혼란기에 춘추향사가 어렵게 되어 1953년(계사)8월에 당시 원임 朴鳳求, 金英中, 邊時淵, 유학자 安圭容, 奇宇采, 제씨 등 26인이 山仰契를 발기하여 전국의 유림이 高山仰止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존현위도의 정신으로 춘추향사를 봉행하여 왔음.

당시 발기인 : 安圭容, 奇宇采, 金圭稷, 奇儀鎭, 金天奎, 金仁中, 邊東曄, 梁會喆, 柳春錫
李宅奎, 金度中, 李鍾坤, 金榮洙, 朴鳳求, 金俊植, 沈權淳, 權純命, 盧軫永
柳永善, 鄭泰冕, 金漢中, 金從洙, 金黃中, 金堯元, 朴廈柱, 邊時淵 26명.

근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발전시켜 선양하여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산악계 재발기 준비위원회(위원장 安晉吾)를 구성하여 高亨坤 필암서원원장을 비롯한 서원집강, 崔昌圭 당시 성균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유림 230여명이 2001. 8. 22일 필암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山仰會로 개칭하여 재발기 하였던 바 그후 활동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2001. 8. 22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생애와 사상” 주제아래 安晉吾 회장(전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0.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추향후 “우암선생이 본 하서선생” 주제 아래 趙鍾業 충남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1. 12. 22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 주제 아래 金基鉉 전북대 윤리학과 교수의 강회.
- 2002. 3. 10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인종승하와 하서의 절의” 주제 아래 金鎭雄씨(서울대 공대졸, 부산거주, 문정공과 부도유사)의 강회.
- 2002. 8. 22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선생 신도비명-우암 송시열찬”을 朴來鎬씨(서원 집강)가 번역 봉독.
- 2002. 9. 26일 秋享후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천명사상”의 주제 아래 尹絲淳 고려대 명예교수의 강회.
- 2002. 12. 1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1호) 1000부를 발행 配布.
- 2002. 12. 23일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하서 선생의 선비정신” 주제 아래 전주대 吳鍾逸교수의 강회.
- 2003. 3. 15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춘향후 “하서 문학의 도학적 이해”의 주제 아래 朴煥圭 전남대 명예교수(담양 가사문학관장)의 강회.
- 2003. 5. 28일 필암서원 청절당에서 한시 백일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安晉吾 산악회장(전남대 명예교수, 다산학 연구원장)의 특강을 하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2003. 6. 20일 회원 소식지인 山仰會報(통권 제2호) 1,500부를 발행 配布.
- 2003. 7. 13일 광주 향교 유림회관에서 “현대한국유교의 과제” 주제 아래 서울대 종교학과 금장태 교수의 강회를 여는 등 하서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탐구 전파하는데 기여하였음.

▶ 癸未年 秋享祭 奉行.

지난 9.23일 (음8.27일) 하서선생을 추모하는 秋享祭가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필암서원(국가 사적 제242호)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추향에는 유한상(柳漢相) 성균관고문, 박종달(朴鍾達)광주 향교 재단이사장, 안진오(安晉吾)필암서원산양회장, 김달수(金達洙)울산김씨 대종회장,김동철(金東喆)이화여대명예교수,김신량(金臣亮)장성교육장과 전국 각지의 유림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초헌관에는 이수성(李壽成)전 국무총리가, 아헌관에는 임동익(林東翼) 유림, 종헌관에는 이덕재(李德在) 유림이 맡아서 경건하게 거행하였다. 초헌관을 맡은 이 전총리는 인사말을 통하여 “하서선생은 영남의 퇴계 이황(李滉)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조선시대 도학에 큰 자취를 남긴 호남의 대헌(大賢)”이라고 하였다

추향제가 끝난 뒤 안동교(안동교)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청절당에서 “하서선생의 경연활동과 군주교육”의 주제아래 강론이 있었는데 “하서선생의 君主論 根幹은 덕치주의에 있다고 강조하며 선생께서 학문을 통하여 도덕성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한 정책을 펼치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군주의 최대 임무로 보았다”고 강론 하였다.



추향제를 봉행하기 위하여 우동사(祐東祠)로 향하는 제관들.

▶ 삭망 奉審 마친 후 강회열어..

필암서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삭망(朔望) 봉심을 마치고 청절당에 모여서 강회를 열고 있는데 서원 집강과 본손들이 매회 12 - 16명 참석하고 있다.

강회는 우선 청절당 내에 게시된 白鹿洞學規와 高峰, 霧峰, 松江, 屏溪 등 제현의 하서선생을 추모하는 한시의 해독을 목표로 하여 蘆江 朴來鎬회원이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유림의 참석도 환영한다고 한다.

▶ 필암서원 선비학당운영

장성군청 후원으로 99년 4월에 문을 연 本院 선비학당은 郡民들에게 推句, 四字小學, 明心寶鑑, 大學을 읽는 공부를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서예공부도 하고 있다. 漢文은 本院 집강인 蘆江 朴來鎬가 가르치고 있으며, 서예는 필암서원 산앙회 상임부회장 金炳勳씨가 지도하고 있다. 장성군청 4층에서 한차례 서예전도 가진 바 있다. 선비학당은 文不如長城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또한, 하서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 서원방문자 크게 늘어...

하서 김인후선생 모신 필암서원에 방문객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방명록에서 발췌하여 보면,

03. 8. 14 화순중학교 김종만 외 41명 03. 9. 16 동양문헌학회 이준영 외 16명
03. 9. 27 논산초등학교 4-5학년 200명 03. 9. 28 서울 유중섭 외 21명
03. 9. 29 미국 시애틀 김병훈씨 03. 9. 29 원광대학교 조정근 교수외 23명
03. 9. 30 전북대학교 노상순 교수 외 03.10. 1 진주경상대 역사교육과 민혜진 외 36명
03.10. 3 육군기계화학교 홍길대 외 03.10. 7 경남 함안군 유도회 배영우외 32명
03.10. 9 영광군서초등교 학부모 임광호외 161명
03.10. 23 서울 이화여대평생교육원 노덕희외 38명
03.10. 27 미국 뉴욕 박수일(朴秀一)
03.11. 7 제주도 서귀포시 신순령(愼洵寧)외 32명.

이와같이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와 멀리 미국에서 까지 원근을 가리지 않고, 계층별로는 초등학생에서 대학교수에 이르기 까지 개인과 단체의 방문이 매일 평균 3-4백여명씩 이어지고 있어 안내 전문요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문자들의 대부분이 장성군은 물론 인근의 문화유적을 견학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장성군 당국의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다.

▶ 동양문헌학회 하서집 완독.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호남문화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동양문헌학회(회장 안진오)의 회원들이 하서집 원문을 독파하였다. 필암서원 산앙회 회원이 다수 포함된 동양문헌학회에서는 지난 2.18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광주시 금남로 5가 녹양서예원에서 12-18명이 모여 하서집 원문을 “홍문관차자” 부터 강독하기 시작하여 9. 16일에는 필암서원을 방문하여 청절당에서 우암선생의 “하서 선생 신도비명”을 끝으로 강독을 마쳤으며 완독을 기념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하서선생을 추모하는 7언 율시를 지어 낭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필암서원 별유사 김용숙씨, 장의 박래호씨, 산앙회 상임부회장 김병훈씨 등이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하였으며 학회의 이준영 부회장은 회장(차산 안진오)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하여 “학회 회원들의 하서집 강독으로 회원 각자의 고전 이해력은 물론 하서선생의 훌륭한 학문세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회원이신 허이중 선생(조선대 국문과 대학원)은 “하서선생의 시문학연구”를 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서집 강독에 참여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회원들 대부분이 하서집 강독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하서선생의 도학, 절의, 문장에 대한 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효와 의리의 참된 人間愛를 바탕으로 한 하서선생의 사상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 학술강연회 성대히 마쳐.

필암서원 산양회(회장 안진오 전남대 명예교수)의 제9차 학술강연회가 지난 7.13일(목요일) 10:00에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향교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산양회 회원과 광주, 전남의 유림지도자, 종교철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등 15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북 함열유도회(회장 김봉진) 간부들도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강사로 초청된 금장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현대 한국 유교의 과제”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하여 현대유교의 실상과 조직 및 현황을 적시하면서 범람하는 서구문화에 의례제도가 붕괴되고 전통문화가 실종된 환경에 처하여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현실문제는 유교적 가치관이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영역도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주제 발표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김재수(광주교육대학교수), 공병철(유도회 광주시본부 부회장), 강중석(유교신문 명예기자)씨 등이 질문을 통하여 당면한 유교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에게 연설관계 유인물과 함께 필암서원 별유사 김용숙씨가 간행한 하서선생 편저 백연초해 국역본과 기념타월이 증정되었다.

▶ 柳漢相 執綱 “멋진 노인”에 선정돼.

필암서원 집강이신 東江 柳漢相(92. 광주 북구 우산동)회원은 지난 1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가 선정한 “멋진 노인”으로 뽑혔다.

90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에서 고전을 강독하거나 청소년을 상대로 서예를 가르치며 강의를 하는 등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원로 유림으로 전통유교문화 계승에 평생을 바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멋진 노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에서 전국의 8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이 타에 모범이 되는 12명을 선발하였다.

柳漢相 翁께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나라에서 상을 주는 것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감격스럽다”는 수상 소감과 함께 “후진을 양성하고 젊은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였다.

▶ 일심정 重修마쳐.

산양회 책임연구위원이신 만암(晩巖)김진웅(金鎭雄) 회원께서는 지난 10월 12일 고향인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동령동 마을에서 일심정(一心亭)을 중건하여 낙성식을 가졌었다.

일심정은 만암의 선고이신 동원처사께서 울산김씨 집성촌인 이곳 동령마을 주민들의 휴게의 장소로 처음 지었던 것인데 비바람에 노후화하여 이번에 만암께서 추모의 정으로 다시 중건한 모정이다. 국도 1호선을 따라 북이면 사거리를 지나 2키로 쯤 가다 보면 정읍으로 가는 터널 못 미쳐 오른쪽으로 해발 150미터 가량의 산 중턱에 동령동 마을이 보이는데 노령산과 입암산, 방

장산이 멀리 감싸고 시루봉과 매봉 옥녀봉으로 이어지는 산세에 소나무와 대숲이 어우러져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되어 잘살자는 뜻으로 “일심정”이라고 이름 지어진 연고인지 “6.25 동란때 장성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었던 곳”이라 한다.

한편 일심정 중건을 축하하며 부산,대구,서울 등 경향 각지에서 보내온 한시와 휘호를 엮어 참석자들에게 증정하여 중건의 취지와 감사의 마음을 널리 전하였다.

하서선생의 후손되는 만암계서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중앙기계공업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 바쁜 가운데에서도 항상 고향과 조상을 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선조의 문집을 출간 하였고 “인종의 승화와 하서의 절의”라는 저서를 내서 하서선생의 도학과 절의를 올바르게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문화해설사 대상 강의

지역문화관광 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장성군청이 전남여성회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했는데, 본회 편집주간이신 金梓洙교수(광주교대)가 “하서 김인후와 필암서원”이란 주제로 지난 10월 14일 장성군청 소회의실에서 3시간 강의하였다.

나이 많은 40여명의 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학생들보다 더 열의를 보여 장성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고 한다.

▶ 하서선생 학술토론회 열려

광주시 북구청이 주최하고 무등산권 문화유산 보존회에서 주관한 ‘무등산권 사립문화 조성과 김인후, 양산보 선생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가 지난 10월 10일(금)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재균 북구청장, 서명원 무등산권 문화유산 보존회 상임대표, 정상진 북구의회의장 그리고 고 울산 김씨, 제주 양씨 중친회 관계자, 광주향교 유림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전북대 김기현 교수의 “하서의 학문세계와 후학양성”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김교수는 하서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이라는 일관된 주제에 다양한 범주의 사유와 실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가사문학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지만 하서선생의 학문을 자칫 ‘문학’에 낙착시킬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말하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전남대 안동교 교수는 발표자가 하서선생이 바라본 자연의 정신과 인간의 도덕, 그리고 도덕의 실천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자기완성과 타자성취(成己成物)가 도덕적 표준으로 함축되어 있으니 본래 유학이 제시한 이념과 지표에 따라 학문활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식전 행사로 북구청에서 준비한 소쇄원 48詠에 대한 슬라이드가 상영되었는데 각 장마다 글과 배경화면이 조화를 이루어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정리 : 총무 김장수)

백련초해(百聯抄解) 현대어(現代語) 번역 배포기(記)

본시 백련초해(百聯抄解)는 文正公 河西 金鱗厚(1510-1560) 선생께서 1548년 39세 전후(추정)에 문인(門人)들에게 한시(漢詩)를 가르치기 위해, 고대명시(古代名詩) 중에서 연구(聯句) 백수(白首)를 뽑아 직접 쓰고, 언해(諺解) 한 것을 1610년(광해 2년)에 판각하여 필암서원에 소장한 것이다.

그 후 1916년(병진년) 하서전집 속편(續編)에 게재(揭載)되어 있었으나, 유학자나 국문학자들은 물론이고, 자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서선생에 대해서 정조(正祖)는 “하서 김문정(文靖)의 도학은 진정하고 독실하여,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바이고, 그의 선행후지(先行後知)와 직내방외(直內方外)의 공부를 말한다면 실로 우리나라의 제일인자(第一人者)이다”라고 칭찬하고, 이어 “학문과 절의와 문장에 있어서 이를 다 갖춘 사람은 홀로 김하서(河西) 한 사람 뿐이다”라며 그를 특별히 존경한다고 했다.

또한 우암(尤庵)송시열 선생은 신도비명에 쓰기를 “이 나라 인물 중 도학(道學)·절의(節義)·문장(文章)을 다 갖춘 이가 없는데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도우셔서 선생으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시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인물임에도 그에 관한 일반의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생애에 이론 뛰어난 문장과 국문학적 공헌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선생이 호남가단(湖南歌壇)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송강문학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서선생은 어려서부터 출중한 문학적 재질을 가져 6세 때에는 벌써 시를 짓기 시작했다.

어른들은 어린 나이로 시를 짓는 하서가 신기하여 ‘하늘’이란 제목으로 시를 지어보라고 말하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둥글고 크며 아득한 하늘 / 끝없이 넓고 텅 비어 있으며 땅을 감싸도다 / 만물을 갈아 자라게 하는데 / 기 나라 사람은 왜 무너질까 걱정했고,”라는 시를 지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선생은 평소 “시(詩)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다.”고 여겼고, 많은 생각을 시로 표현했다.

‘청산도 절로절로 록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 절로 늙사오리.”

라는 자연가(自然歌) 등 격조 높은 단가 3수를 비롯하여 면망정삼십영(倅望亭三十詠), 소쇄원사십팔영(瀟灑園四十八詠)등 그가 남긴 한시는 1600수나 되었다.

선생의 시 문학의 기조는 시경(詩經)과 초사(楚辭), 이백(李白), 두보(杜甫)를 읽어 예사(藝事)의 바탕을 삼았기에 일반적인 흥취의 개념을 넘어 도(道)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게 된다.

특히 선생의 백련초해(百聯抄解)는 국문학상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던져주었다. 그 내용

을 보면 주로 자연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서 나무 27, 꽃 20, 새 19, 바람 11, 비 7, 산 6, 그늘 6, 계절 6, 곤충 5, 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476개의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여, 어문학 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다.

백년초해(百聯抄解)는 동경대본(東京大本), 필암서원본, 송광사본, 장석련본등 12개의 이본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으며, 편찬자나 편찬 의도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저명한 학자들인 이병기, 신춘자, 이상보, 정익섭, 박준규, 이돈주 교수등은 하서 선생을 편자로 보고 있다.

또한 여러 이본중에서도 가장 정제 된 판본으로는 동경대본과 필암서원본이니, 필암서원본을 석(釋)과 음(音)이 붙어 있지 않지만 「·」방점이 붙어 있고, 수록 연수(聯數)는 백련(百聯)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99수로 1수가 모자란다.

이에 대하여 최범훈(崔範勳)은 “이는 필경 책제(冊題) 백년초해(百聯抄解)의 새김 ‘온갖 글귀 바사 긴 거시라’를 따로 1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생긴 착오가 아닌가 하였다.

백련초해는 한자로 된 한시(漢詩)와 500여년 전의 말과 언문(諺文)으로 표기 되었으며, 하서전집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읽고, 음미(吟味) 할 수 없었음을 필자는 늘 안타깝게 여겨왔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음미하며, 즐기지 않으면 안타까울 터이기에, 시(詩) 속에 담겨 自然과 人生 그리고 宇哲學의 오묘함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가 3년여의 기간동안 현대의 말과 한글로 완전 번역하여, 단일본으로 발행하게 된 것이다.

책이 발간된 이후 2003. 7~8월사이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광주일보, 성균관 유교신문등 도하 각 신문에서 16세기 중반, 한글을 언문이라 하여 비하(卑下)하던 시절에 도학자이며, 한학자인 하서 선생께서, 국문학에 높은 조예(造詣)와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적 발견을 높이 평가하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본 서책에 대해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접한 경향각지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독(購讀)을 신청하여 왔으나, 이에 다 응하지 못하고, 전국 종합 대학 도서관 150여개소에 기증하여 후학들의 연구에 일조하였다.

또한 전국유림 200여명, 친족 100여명에 배부하여 일차 출판 500부 전부를 배포하였다.

백련초해를 받아 본 많은 분들이 하서 선생이 도학(道學)뿐만 아니라, 국문학에도 조예가 깊어, 우리나라 국문학 가단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자료로 귀중하게 활용하겠다는 뜻과 함께 감사장을 보내온 바있었다.

이번 출간을 통해 천학비재(淺學菲才)인 필자가 국내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양대 중앙지 독자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좋은 시를 소개하고, 하서 할아버님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려,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일생일대의 명예와 보람으로 여기면서 그 경위를 소개하는 바이다.

2003.

筆巖書院 別有司 金容淑

筆巖書院 山仰會 副今長

筆巖書院 山仰會員 名單

◎ 서울, 경기, 대구, 부산

<姓名, 本貫, 雅號, 電話番號>

- | | | | |
|--------------------|------------------|---------------|------------------|
| ● 李昆煥, 仁川, 然哉 | T. 053-471-3717 | ● 金炳閏, 蔚山, 愚學 | T. 063-223-9729 |
| ● 金成勳, 光山, 月浦 | T. 02-549-7878 | ● 丁熒均, 義城, 春臺 | T. 016-622-9146 |
| ● 金泳仲, 蔚山, 又湖 | T. 02-333-2868 | ● 尹柱男, 坡平, 克齋 | T. 016-9899-0851 |
| ● 高洪錫, 長興, 琴軒 | T. 018-224-7822 | ● 金鍾鶴, 光山, 岳岩 | T. 063-546-9304 |
| ● 邊璵燮, 黃州, 元谷 | T. 016-342-2288 | ● 申文秀, 高靈, 月汀 | T. 016-627-4427 |
| ● 田光弘, 潭陽 | T. 011-9654-2723 | ● 金鍾大, 慶州, 春山 | T. 063-286-5698 |
| ● 金鎮雄, 蔚山, 晚巖 | T. 011-565-4237 | ● 金鍾懷, 慶州, 清谷 | T. 011-9437-8115 |
| ● 宋東憲, 恩津, 石泉 | T. 042-284-0161 | ● 李夏永, 全義, 紹強 | T. 063-282-7608 |
| ● 金相燁, 蔚山 | T. 02-3481-8436 | ● 安在格, 順興, 行山 | T. 017-606-3389 |
| ● 趙鍾業, 漢陽, 鶴山 | T. 042-825-9981 | ● 林東翼, 羅州, 雲湖 | T. 019-489-6697 |
| ● 鄭炫柁, 草溪, 素浪 | T. 011-555-7991 | ● 金鍾燮, 蔚山, 中軒 | T. 063-221-4592 |
| ● 金泰守, 蔚山, 松鹿 | T. 011-673-4167 | ● 高南奎, 長興, 秀山 | T. 063-562-4277 |
| ● 高亨坤, 서울시 필암서원 원장 | | ● 金炳稠, 蔚山, 仁堂 | T. 063-855-2321 |
| ● 金熙明, 光山, 誠菴 | T. 017-560-4586 | ● 李世煥, 固城, 葛川 | T. 011-670-7855 |
| ● 金在億, 蔚山, 三洋 | T. 011-302-7012 | | 063-285-7755 |
| ● 吳錫源, 海州, 霞耘 | T. 02-744-0303 | ● 金炳權, 蔚山, 光彬 | T. 011-655-0018 |
| | 02-760-0207 | ● 朴金奎 | T. 063-851-5056 |
| | | ● 金錫基, 清州, 清史 | T. 063-564-2302 |
| | | ● 安珍模, 順興, 竹堂 | T. 063-635-3154 |
| | | ● 楊萬鼎, 南原, 玄谷 | T. 063-288-3646 |
| | | ● 金載元, 蔚山 | T. 063-267-6645 |
| | | ● 權熙文 |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
| | | ● 安泰錫 | 완산구 태평동 83-29 |
| | | ● 吳鍾逸, 同福, 臥龍 | T. 063-220-2303 |
| | | 전주대학교수 | |
| | | ● 金彭洙, 蔚山, 莘浩 | T. 011-681-0160 |
| | | | 063-230-0160 |

◎ 전북

- | | |
|---------------|------------------|
| ● 崔宗春, 全州, 春塘 | T. 011-9626-9501 |
| ● 金炳寬, 蔚山, 安松 | T. 063-652-5180 |
| ● 金炳崙, 蔚山 | T. 011-678-2051 |
| ● 崔四鉉, 全州 | T. 011-9991-9153 |
| ● 鄭雲炎, 迎日, 斗下 | T. 018-285-3900 |
| ● 金鳳洙, 蔚山 | T. 063-274-3821 |
| ● 劉一鍾, 江陵, 河南 | T. 011-9923-3497 |

◎ 전남지역

- | | |
|---------------|------------------|
| ● 金載洪, 蔚山, 後山 | T. 011-9603-3445 |
| ● 文在國, 南平, 心山 | T. 061-852-8474 |

- 李文甲, 仁川, 松齋 T. 011-647-2029
- 吳永在, 海州, 雪竹 T. 061-433-5139
- 金吉雄, 金寧, 瑞興 T. 011-609-1197
- 金正泰, 金海 T. 011-604-1077
- 金圭浩, 慶州, 養浩 T. 061-372-7253
- 趙鏞敏, 咸安, 雲菴 T. 062-222-6474
061-337-8850
- 梁柁, 南原, 省齊 영광 법성면 월산리 405
- 丁宗杓, 羅州, 慕蓮 T. 061-363-3715
- 金永鎬, 光山, 春園 T. 061-362-3564
- 馬洪淑, 長興, 芳原 곡성 석곡면 방송리
- 林滿澤, 羅州, 淵齊 T. 011-347-1039
- 許津, 陽川, 隱谷 T. 061-363-5065
- 金炳椀, 蔚山 T. 061-382-8619
- 沈在植, 青松, 擇山 T. 011-9604-6127
- 沈雲植, 青松, 雲齊 T. 061-382-7847
- 李炅檣, 全州, 肯堂 T. 016-657-5353
- 朱奎南, 新安, 忍堂 T. 011-601-2153
- 李根宰, 全州 T. 019-312-5646
- 李泳福, 公州, 雲亭 T. 062-228-9657
- 朴奇鎬, 密陽, 又玄 T. 061-373-0518
- 梁亨根, 濟州, 春坡 T. 061-382-7138
- 梁仲鎬, 濟州 T. 061-382-7588
- 朴成鎬 담양 대전면 덕진리
- 朴龍巖, 密城, 誠濟 T. 061-473-4606
- 宋在烈, 礪山, 春圃 T. 061-833-3937
- 朴文鎬, 密陽, 友堂 T. 061-857-1936
- 吳翼星, 濟州, 顧南 T. 061-362-8884
- 任根亨, 豐川, 正齋 T. 016-9676-3216
- 宋嘻鎭, 洪州, 性齋 T. 011-649-0134
- 李雲休, 光山, 竹下 T. 061-372-4471
- 김진규 곡성 옥과 금의 537
- 임원택 나주향교 전교
- 金平浩
- 鄭鶴基, 河東, 礎亭 T. 019-605-2804
- 金相鶴, 蔚山, 石坡 T. 061-393-4014
- 李五範, 咸平, 愍庵 T. 061-394-2412
- 金炳孝, 蔚山, 東岩 T. 016-9810-8248
- 金炳三, 蔚山, 善齋 T. 061-394-0833
- 金洙煥, 金海, 龍岡 T. 016-458-4700
- 金鎔普, 蔚山, 栗亭 T. 019-692-5222
- 金相杓, 蔚山, 加平 T. 019-625-5115
- 林基玉, 兆陽, 南隱 T. 061-392-3602
- 金麟奎, 蔚山, 栢堂 T. 011-638-4394
- 金容益, 蔚山, 東隱 T. 019-9160-7621
- 金南圭, 蔚山, 愚耕 북이면 사거리 172
- 金在洙, 晉州, 貞軒 T. 061-394-2242
- 奇宇天, 幸州, 松隱堂 T. 061-394-2808
- 邊東焄, 黃州 T. 011-666-8113
- 劉載述, 江陵, 蘆松 T. 061-392-8987
- 李載洙, 咸平, 鶴圓 T. 061-394-2306
- 金福源, 商山, 湖隱 T. 011-219-1969
- 金炳勳, 蔚山, 欽齋 T. 019-383-2645
- 張在賢, 仁同 T. 011-603-9142
- 劉載善, 江陵, 林阜 T. 019-640-4820
- 邊東銘, 黃州, 虎巖 T. 061-393-1157
- 邊甲哲, 黃州 T. 019-430-5204
- 金仁泳, 金海, 春圃 T. 061-394-3344
- 金法洙, 光山 T. 018-571-5720
- 宣在奕, 寶城, 笑巖 T. 019-9146-3934
- 金源明, 光山, 雲岩 T. 016-609-2077
- 羅國柱, 錦城, 清軒 T. 019-394-4699
- 李沂錫, 光山, 栢軒 T. 011-627-1856
- 宋炳植, 礪山, 松林 T. 019-9164-5391
- 李相鏞, 慶州, 碧松 T. 017-602-0436
- 金炳倫, 蔚山, 京巖 T. 011-643-8964
- 金應烈, 晉州, 漁雲 T. 061-394-1937
- 邊夏燮, 黃州, 梅河 T. 011-9718-2991
- 金容淳, 光山, 龍汀 T. 011-647-2278
- 李準泳, 慶州, 誠軒 T. 019-9177-1311
- 邊凡錫, 黃州, 次菴 T. 017-601-2377
- 韓太燮, 清州, 柳雲 T. 017-248-2175
- 金漢植, 光山, 愼菴 T. 061-393-5149
- 金相德, 蔚山 T. 061-392-7511

◎ 장성

- 金炳坤, 金海, 靜山 T. 061-394-1272
- 林載珩, 兆陽 T. 011-614-8835
- 邊日燮, 黃州, 德齋 T. 011-9440-0627

- 梁熙澤, 南原, 平齋 T. 016-9646-5838
- 金相元, 蔚山, 台岩 T. 019-618-2804
- 朴來鎬, 泰仁, 蘆江 T. 061-393-8880
- 金相基, 蔚山 T. 017-650-5721
- 羅天柱, 錦城, 鳳耕 T. 061-394-2315
- 金道中, 蔚山, 中山 T. 011-605-9754
- 金局泰, 蔚山, 坪軒 T. 011-615-5595
- 柳在甲, 文化, 森隱 T. 016-640-2131
- 朴東熙, 密陽, 松岩 T. 016-9340-7276
- 李炳玆, 光山, 清下 T. 061-392-1407
- 金盛洙, 蔚山, 牧井 T. 061-393-6771
- 金炳千, 蔚山, 湖巖 T. 061-393-1298
- 朴判湧, 密城, 潘水堂 T. 063-563-7908
061-393-7575
- 邊炳淵, 黃州, 強庵 T. 061-393-1141
011-615-5595
- 金泳豐, 蔚山, 白松 T. 011-645-7445
- 高光玉, 長興, 牛峰 T. 061-394-2079
- 金鍾權, 蔚山 진원면 선적리
- 高世中, 長興, 松谷 삼계면 수옥리 옥천
- 奇梲舒, 幸州, 門濫 T. 017-602-4579
- 崔南周, 全州 T. 018-612-0574
- 金溱, 蔚山 T. 017-714-4774
- 柳壽煥, 文化 T. 011-604-7975
- 金祥中, 蔚山, 呂古 T. 061-394-4709
- 金炳棺, 蔚山 T. 016-433-7544
- 奉炳國, 河陰, 友松 T. 011-427-2309
- 金道今, 金海, 鷺崗 T. 011-9890-5661
- 朴來說, 泰仁, 遠齊 T. 061-392-3252
- 金昌洙, 光山, 和堂 T. 061-393-5151

◎광주(동구)

- 奇百燮, 幸州, 牛峰 T. 062-528-0993
- 崔相玉, 全州, 裕堂 T. 062-222-1357
062-527-8818
- 秋三得, 秋溪, 義齋 T. 062-223-8836
- 安晉吾, 竹山, 次山 T. 062-512-7475
- 南兌龍, 宜寧, 松泉 T. 062-227-6703
062-227-4904

- 申亨澈, 平山, 立軒 T. 062-672-7008
062-227-6286
- 宋澈, 洪州, 海石 T. 017-614-9189
- 曹相烈, 昌寧, 厚堂 T. 016-606-5600
062-233-1313
- 趙炳春, 金堤, 愚溪 T. 017-603-4090
- 金相憲, 蔚山, 德齊 T. 011-9620-5216
- 李圭珩, 全州, 松坡 T. 062-223-5480
062-222-3130
- 張斗錫, 興德, 海觀 T. 062-227-9004
062-224-6364
- 孔鍊雄, 曲阜, 瑞山 T. 062-522-3395
062-224-3393
- 金長洙, 善山, 晨溪 T. 016-622-5577
062-232-5577
- 柳晏重, 文化, 春溪 T. 017-618-6709
- 朴景來, 珍原, 綠洋 T. 062-223-2266
- 梁原豪, 濟州, 松軒 T. 062-232-8716
062-223-0938
- 양해철, 濟州 T. 011-611-9010
- 梁二鎬, 濟州 T. 017-610-0877
- 梁在斗, 濟州, 石晶 T. 062-223-7477
- 梁平默, 濟州 산수1동 동진맨션 3-204호
- 閔祐植, 驪興, 守菴 T. 062-228-6767
- 金鍾灝, 金海, 南松 T. 016-9345-4407
- 梁海根, 濟州, 玉井 T. 011-617-3759
- 崔基洪, 慶州, 金沙 T. 062-223-0135

◎광주(서구)

- 尹炳甲, 驪州 T. 062-369-1390
016-9565-1390
- 曹基元, 昌寧, 東川 T. 062-369-8816
017-603-8816
- 林奉基, 羅州, 晚秋 T. 062-363-7855
017-635-7855
- 尹淙根, 驪州, 義齋 T. 062-366-4311
017-627-7008
- 尹漳鉉, 海南, 一沙 T. 016-658-5357

- 姜仲錫, 晉州, 梅亭 T. 062-371-0108
017-609-0108
- 李啓善, 咸平, 福山 T. 062-374-4190
- 奇世樂, 幸州, 滿齋 T. 062-375-4348
011-609-6965
- 吳世圭, 海州, 修岡 T. 019-371-6653
- 柳鍾相, 高興, 玄供 T. 011-9865-3930
- 鄭尙允, 光州, 源齋 T. 062-372-0889
011-624-0277
- 金相德, 蔚山 T. 062-381-7799
- 宋河潤, 礪山, 曉江 T. 011-642-9525
- 金炳槿, 蔚山, 仁松 T. 062-373-2599,
018-600-2599
- 羅季柱, 錦城, 安石 T. 062-381-1510
- 李汀圭, 星州, 青坡 T. 011-628-1372
- 李載英, 咸平, 竹山 쌍촌1동 328-23
- 宋寬鍾, 礪山, 전남대학교 T. 062-521-5850
- 安東敎, 竹山, 전남대학교 T. 062-376-5254

◎ 광주(남구)

- 金容俊, 光山 T. 019-662-2052
- 梁會亨, 濟州, 石俸 T. 017-603-9353
- 金正熙, 淸道, 仁山 T. 062-676-0305
- 羅性洙, 羅州, 道川 월산 4동 907-9
- 吳仁均, 羅州, 鰲山 T. 011-618-0005
- 金杜洙, 善山, 松隱 T. 062-363-6023
- 安基奉, 順興, 松軒 T. 011-624-3107
- 梁在東, 濟州, 松雲 T. 062-671-4199
- 金宜洙, 蔚山 T. 011-601-7383
- 金容淑, 蔚山, 素巖 T. 011-603-5724
- 金鍾會, 金海, 省齋 T. 062-651-1747
019-9147-1747
- 宋泰瑞, 礪山, 雪岡 T. 062-672-6178
- 朴泰根, 陰城, 西山 T. 062-941-2911
011-603-1252
- 金勝圭, 蔚山, 仁潭 T. 062-676-0902,
019-9669-0902
- 吳炳祚, 羅州, 省齋 T. 062-571-1855
011-636-5299

- 金容河, 蔚山 T. 062-530-3840
016-612-2103
- 高永斗, 長興, 三勉, 庚午 T. 062-674-0007
011-601-0770
- 金相煥, 蔚山 T. 062-676-3881
016-608-8183
- 金沂洙, 蔚山 방림동 삼익A 11-303
- 宋炫珠, 新平, 雨山 T. 011-416-5781
- 河應善, 晉州, 松岩 T. 062-364-4262
011-279-6441
- 金梓洙, 蔚山 T. 062-673-6395
016-705-6395
- 李潑, 星州, 石泉 T. 062-671-2677
- 梁鎮禹, 濟州, 仁谷 T. 062-672-1518
- 金基哲, 春江 백운1동 벽산A 101-1202
- 金병철 방림동 라인효친 208-1110
- 申斗千, 平山, 海松 T. 062-676-8752
018-642-7968

◎ 광주(북구)

- 金晟洙, 蔚山 T. 062-522-3985
- 奇共度, 幸州, 養正 중흥동 711-3
- 奇雲燮, 幸州, 惺菴 T. 062-263-8054
016-686-8054
- 金炳大, 蔚山, 芝村 T. 062-574-4928
- 愼日範, 居昌, 松坡 T. 062-521-6126
- 曹龍根, 昌寧, 草菴 T. 062-525-2999
- 羅俊洙, 羅州, 石亭 T. 062-262-6815
011-9667-6815
- 李洪柱, 全州, 顧菴 T. 062-529-1314
018-602-4773
- 鄭安鎮, 晉州, 湖堂 T. 062-512-2996
- 朴東圭, 密陽, 松圃 T. 062-523-7731
- 金熙洙, 蔚山, 淸蔭 T. 062-512-0222
- 柳漢相, 文化, 東江 T. 062-529-1197
- 金鎮云, 蔚山, 木亭 T. 062-521-8568
019-628-8568
- 朴鎮龍, 順天, 素田 T. 062-672-7009
016-642-9575

- 金鏞植, 光山, 春溪 T. 062-512-6372
- 金鍾云, 蔚山, 海岩 T. 062-261-7676
011-602-2091
- 金榛洙, 蔚山 T. 016-603-2939
- 金文珍, 蔚山, 南松 T. 062-528-7001
062-521-2228
- 金官中, 蔚山 T. 011-606-9699
- 金昌洙, 蔚山, 峴松 T. 062-521-0371
019-616-0372
- 金鎮午, 蔚山, 星谷 T. 062-524-6379
- 金寅洙, 蔚山 T. 062-524-9766
016-779-9766
- 沈愚慶, 青松, 東谷 T. 011-624-8932
- 柳淇南, 高興, 修巖 T. 011-9766-4150
- 金相燾, 蔚山, 鮮山 T. 062-521-2702
019-345-2702
- 孔炳哲, 曲阜, 林泉 T. 062-522-5100
011-624-0030
- 徐明源, 達成, 清灘 T. 062-232-1153
062-512-2914
- 朴炯浩, 珍原, 竹巖 T. 062-512-5382
- 金在俊, 蔚山, 清軒 T. 016-752-5286
- 金容大, 蔚山, 德川 T. 016-612-3349
- 金炳琰, 蔚山, 隱松 T. 062-529-7629
019-9166-6345
- 金乙洙, 蔚山, 遜雲 T. 062-265-3650
011-620-0900
- 金京洙, 蔚山 T. 062-523-2963
016-602-2963
- 金鍾桓, 蔚山, 丹軒 T. 062-512-3003
016-603-0070
- 金治中, 蔚山, 月江 T. 062-523-2163
- 朴鍾達, 忠州, 松石 T. 062-262-1779
- 閔京鎬, 驪興, 龍池 T. 062-266-8961
- 梁吉鎬, 濟州 T. 062-672-2646
011-603-8984
- 梁홍일, 濟州 T. 062-251-1183
011-612-5183
- 梁太鎬, 濟州 T. 062-521-8263
- 金炳基, 蔚山 T. 019-291-3421

- 金靈洙, 蔚山 T. 061-393-2874
019-373-8235
- 柳鎮圭, 文化, 修雲 T. 062-361-4580
017-615-8298
- 金宅洙, 蔚山, 嘉山 T. 062-523-7992
011-636-7992
- 羅昌淳, 錦城, 撫山 T. 062-527-0461
- 金正洙, 蔚山, 西雲 T. 062-525-7385
- 金鐘得, 金海, 聖下 T. 062-262-7868
- 許利鍾, 泰仁, 尙山 T. 062-261-5300
- 孔庚鎬, 曲阜, 皓隱 T. 018-610-1877
062-416-1779

◎광주(광산구)

- 李官九, 全州, 南谷 T. 062-952-8062
- 金永穆, 蔚山, 小軒 T. 062-956-0138
- 宋炳大, 礪山, 栢軒 T. 062-943-6581
- 金商順, 慶州, 復初 T. 062-944-2394
- 李宰喆, 全州, 道隱 T. 019-625-7517
- 曹瑄培, 昌寧, 惺軒 T. 062-943-9898
- 朴溱夏, 密陽, 松軒 T. 017-605-0578
- 梁哲承, 濟州, 松齋 T. 062-941-9805
- 奇世潭, 幸州, 東隱 T. 062-952-8011
011-618-8014
- 李漢秀, 全義, 義松 T. 062-952-8873
011-9613-9496
- 李德在, 光山, 湖亭 T. 062-953-2122
019-228-8881
- 宋榮起 송정동1동 557-1

◎海外

- 金炳均 蔚山 T. 001-904642-8949
8226 Bahia Blna CT Jacksonville FL32256

... 入會를 환영합니다 ...

< 姓名, 本貫, 雅號 >

金炳坤, 金海, 靜山

宋寬鍾, 礪山 · 전남대학교수

金基哲 · 春江 광주백운동

김병철 광주방림동

金道今, 金海, 鶯崗

吳錫源, 海州, 霞耘, 성균관대학교수

동양철학회장

申斗千, 平山, 海松

朴來說, 泰仁, 遠齋

李雲休, 光山, 竹下

李德在, 光山, 湖亭

梁海根, 濟州, 玉井

金平浩

崔基洪, 慶州, 金沙

김진규 곡성 옥과

임원택(나주향교전교)

金彭洙, 蔚山, 莘浩

金炳基, 蔚山 전남대학교수

安東敎, 竹山 전남대학교수

이상 03. 11. 30까지

... 特別會費 誠金內譯 ...

金彭洙 10萬원(전주시 완산구) 金炳基 10萬원(전남대 교수)

* 성금을 보내주신 분에게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서안내 ▶▶▶

대수에 앉아 천명도를 그린다. 백 승 종 지음

- 16세기 큰 선비 하서 김인후를 만나다 -

둘베개

알 림

1. 본회 제10차 학술강연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다수 참석바랍니다.

- 일 시: 2003년 12월 17일(수요일) 10:00
- 장 소: 광주향교 유림회관(광주시 남구 구동 22-3)
- 주 제: 河西 詩의 道學的 性格
- 발 표 자: 연세대학교 김영봉교수

2. 원고 모집안내

- 하서선생의 遺文遺詩를 비롯하여 학문과 사상에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함.
- 보낼곳: 광주시 동구 대의동 57-5 (4층) 대동문화 내 필암서원 산양회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의 분량으로 하되 보내신 분의 주소 성명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3.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통보하여 주십시오.

- 다음호 부터는 회원 여러분의 애경사, 선행, 미담 등 특별한 동정을 실어 '산양회 사랑방'으로 꾸미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추천을 바랍니다.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회비 입금 계좌 안내

- 사정상 회의에 나오시지 못한 회원께서는 회비를 다음 계좌로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 농협 645014-56-015348(예금주: 필암서원 산양회 김병훈)

5. 입회 절차 안내

- 신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회 또는 강회에 직접 나오시거나 전화로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의 농협계좌(645014-56-015348)로 입회비 3만원을 입금하시고 전화(016-622-5577 총무 김장수)로 다음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姓名:	本貫:	雅號:	生年月日:
住所: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現職:	學歷 및 經歷:

- 2001년 발기인으로 참여한 분은 별도의 절차없이 입회비 30,000원을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 청년, 여성, 유림의 입회를 적극 환영합니다.

필암서원 산양회 회장

中央機械工業(株)

代表理事 金 鎮 雄

Tel. 051-264-4025~7 Fax. 051-264-4028

釜山廣域市 沙下區 多大洞 1518-3番地

仁宗昇遐와 金河西의 節義



金 鎮 雄 著

명성출판사

부산 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8-3

Tel. 051) 264-4025~7